

21세기로의 전환기에 표현된 패션의
미학적 특성(제1보) : 정성분석을 중심으로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fashion in the transitional period
of the 21st century(Part I) : Qualitative study

광주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이 봉 덕 · 양 속 희*

Dept. of Fashion Design, Kwangju Women's University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Bong Duk Lee · Sook Hee Yang*

(2002. 7. 4 접수)

Abstract

It is anticipated that, in the 21st century, aesthetic sense will be altered radically with the introduction of new value systems and ethical standards. At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new aesthetic senses and identities have already emerged and exerted influence to the society, arts and fashion tren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esthetic characteristic of the transitional period of the 21st century. This study employed the qualitative analysis and the main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he 21st transitional period were found as hybrid, technicism, neo-retro, new naturalism, and multi-nationalism. The transitional fashion in the 21st century mirrors the post-modern trends with diversity and indeterminacy as the basis of changes. It is expected that this pattern will continue to extend persistent and dominant influence to the future fashion industry. In the subsequent study, quantitative analysis will be conducted to verify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analyzed in this study.

Key words: hybrid, technicism, neo-retro, new-naturalism, multi-nationalism;
혼성, 기술지상주의, 신복고, 신자연주의, 다민족주의

I. 서 론

20세기를 마감하고 “제 3 밀레니엄(The third millennium)”을 맞이하면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디지털 및 첨단 기술은 다양성, 가변성, 차별화, 국제화를 특징으로 역사상 가장 급격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혁에 따라 시대적 상황과 미학적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패션은 본격적인 변화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 추세와

정도를 체계적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에 당면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1세기로의 전환기에 표현된 패션의 미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패션의 미학적 분석 틀과 패션의 변화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연구 내용은 첫째, 사회·문화적 관점의 패러다임 변화 일반론을 토대로 미학 패러다임 변화를 살펴본다. 둘째, 21세기 전환기 패션의 전 시기인 20세기 패션의 미학적 패러다임 변화를 모더니즘

패션, 아방가르드 패션,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으로 분류하여 고찰한다. 셋째,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맞이하는 격변의 시기인 21세기 전환기 패션의 미학적 특성을 도출하고 그 의미와 양상을 살펴본다.

본 1차 연구에서는 정성분석(qualitative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여 21세기 전환기 패션의 미학적 특성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사회, 문화, 미학 및 패션 관련 문헌과 연구 논문을 분석하며, 기존 이론 및 현상과의 지속 비교 분석(constant comparative method)¹⁾ 과정을 통해 새로운 특성을 파악한다. 정성분석의 서술 방식은 베버(Weber)²⁾의 문화·역사학의 귀납적인 서술 방법과 기술(記述)·설명적(descriptive-interpretive) 접근 방식을 이용한다. 본 연구의 패러다임 변화 연구를 위한 이론적 틀은 토마스 쿤(Thomas Kuhn)의 패러다임 변환(paradigm shifts) 개념을 도입한다. 이를 근거로 21세기로의 전환기(2000~2001년) 패션에 표현된 미학적 특성을 도출하고 실제 패션 예시를 통해 그 의미와 양상을 살펴본다.

본 1차 연구인 정성분석에 이어서 다음의 제 2차 연구에서는 정량분석(quantitative) 방법인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여 제 1차 정성분석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것은 기존의 문헌분석과 현상의 주관적 설명에 치중했던 다른 패션 분석과는 연구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제 1차에서 2차에 걸쳐 실시된 연구는 패션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검증 및 분석하기 위하여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을 동시에 사용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II. 현대패션의 미학적 패러다임 변화

1. 미학적 패러다임 변화

패러다임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범례' 혹은 '모델'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현대의 '지적 범주'라는 의미와 함께 사회 문화 예술 등에서 순차적 논리 전개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패러다임은 과학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과학자의 사고 방식, 이론 전개의 방법 등을 좌우하는 이론을 일컫는 용어였다. 토마스 쿤(Tomas Kuhn)³⁾에 따르면 새로운 패러다임은

전대미문의 성격과 융통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과학적 사고방식에서는 패러다임 변화, 즉 개념적 혁명이 생겨 지배적인 사고 방식을 와해시키고 대체한 사건이 계속 일어났다. 이러한 갑작스럽고 비연속적 변화는 새로운 가정, 이론, 연구에 의해 촉발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느 시점에서는 어떠한 가정과 방법은 특정 분야를 주도하게 되고 현상에 대한 결정적 도전을 제기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에 의해 도전 받고 붕괴될 때까지 존재한다. 그러나 새로운 패러다임이 주도적인 세력이 된다고 할지라도 사상의 집합과 도전이 계속되는 한 또 다른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⁴⁾.

한 가지 패러다임의 새로운 적용은 궁극적으로는 이전 패러다임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구조와의 개념적 단절을 지향한다. 미학적 가치의 변화는 개별적인 가치와 총괄적인 환경 하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성립하는 것이다⁵⁾. 패션을 비롯한 현대 예술의 특성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학의 패러다임 변화는 모더니즘에서 아방가르드를 거쳐 포스트모더니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모더니즘과 아방가르드는 이분법적 분류에 의한 규범을 토대로 반항적, 공격적 의미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새로운 충격을 제시하고 전형적, 미학적 규범의 반대 성향을 표방한다. 반면, 포스트모더니즘 패러다임은 이분법적 특성의 공존을 허용하며, 전통적 개념과 비전통적 개념 모두를 수용한 애매 모호함 그리고 불확실성을 주요 특성으로 한다⁶⁾.

2. 현대패션의 미학적 패러다임 변화

1) 모더니즘 패션의 미학적 특성

예술분야의 모더니즘은 19세기 말엽부터 20세기 전반기에 걸쳐 서구 예술 분야를 주도했던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예술운동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20세기 초부터 문학이나 예술과 관련된 비평개념의 논의를 필두로 대두되었다⁷⁾. 모더니즘 패러다임은 과거로부터 내려온 관계와 전통을 거부하는 새로운 예술형태를 제시함으로써 전위적, 실험적 예술 운동이라는 의미를 부여받았다.

패션의 변화와 발전은 이러한 모더니즘 시대의 문화 상황의 변화와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었고, 미적 비

관으로서의 모더니즘 운동은 복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모던시대의 패션은 여성의 풍만한 인체 곡선과 장식선호 경향을 무시하고, 장식이 배제된 직선적이고 단순한 디자인과 형태의 복식을 강조함으로써 패션 자체의 순수한 미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대표적 복식 스타일은 20세기 초 패션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폴 푸아레(Paul Poiret)의 엠파이어 튜닉 스타일(Empire Tunic Style), 호블 스타일(Hobble Style), 미나렛 스타일(Minaret Style)을 들 수 있다. 이 스타일들은 이전 시대의 과잉장식이나 인공적인 의복 실루엣에서 벗어나 육체의 자연미를 강조하고 자연스러움을 표방하며, 중세 말기 이래로 계속되어 온 여성들의 콜셋을 디자인에서 배제함으로써 새로운 복식 형태의 등장을 촉발하였다⁹⁾. 이외에도 샤넬(Gabrielle Chanel)은 1950년대 가볍고 신축성있는 트위드 소재로 칼라와 앞여밈 단추를 사용하지 않은 '샤넬 슈트'를 발표하여 단순하면서도 기능성을 강조한 디자인을 고안하여 새로운 패션 개념을 탄생시켰다.

모더니즘 복식은 [사진 1], [사진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과거의 전통과 결별하고 현대성을 새로운 미적 형태로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이성과 합리성을 기본 개념으로 새롭고 혁신적 조형질서의 모색이라는 미학적 현대성을 표방한 미학적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2) 아방가르드 패션의 미학적 특성

모더니즘에서 아방가르드로의 변화는 대중문화와 정치적 부담에서의 초월을 그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아방가르드 예술은 제 2차 세계대전 후 예술형태 자체에 대한 실험을 그 시발점으로 한다. 제 1,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과학과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했으며, 20세기의 역동적인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점차로 인간의 생활과 사고방식에 혁명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야기하면서 '새로움'이 가치의 기준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런 추세 속에서 등장한 것이 아방가르드이다. 예술에서의 아방가르드는 모든 관습적 양식에서 일탈하려는 동시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열린 미학으로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중간 역할을 수행한다.

패션에 있어서 아방가르드는 새로움의 충격과, 대중의 선입관을 공격하고 즉시 수용되지 못하기 때문

에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특징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아방가르드 디자이너들은 오트 쿠튀르처럼 굳어진 형식이나 기존의 미학 형식에 저항한다. 스키야파렐리(Elsa Schiaparelli)는 1920년대 말에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달리(Salvador Dali) 등 동시대의 아방가르드 예술가들과 친분을 가지고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 예술을 의상 디자인에 반영하였다¹⁰⁾. 그는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즐겨 이용한 트롱플뢰이유(trompe l'oeil) 기법, 위치전환에 의한 데페이즈망(dépaysement) 기법들을 통해 복식의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개념들을 거부하고, 예술과 정신세계를 함축한 혁신적인 개념을 복식에 부여했다. 비전통적 재료인 수지, 셀로판, 밀집, 유리등을 통해 이질적 미를 강조한 아방가르드 디자이너들은 기술적인 면은 존중했지만 실용적인 면이나 미학적인 면에 대한 강조나 묘사는 의도적으로 회피함으로써 독창적인 표현세계를 구현하였다. 마드렌느 비오네(Madeleine Vionnet)는 입체재단에 의한 옷의 혁신적인 재단 방법을 개발하여 피트니스와 운동성, 장식 디자인에 관한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¹¹⁾. 그녀는 바이어스 커팅과 독특한 입체재단 수법을 이용해 스웨터와 같은 신축성을 갖게 하고, 입은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드레스가 움직임을 나타내는 아주 독특한 스타일의 튜브 드레스(Tube dress)를 발표했다. 이러한 인체의 자연미를 강조한 디자인은 이성적인 진보의 개념이 패션에까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방가르드 디자이너들은 [사진 3], [사진 4]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형적 미학 규범에 반대 입장을 취함으로써 이를 부정하고 의사소통의 중요한 기술은 상징적 전복이라는 사고를 바탕으로 저항자의 입장을 고수했다. 미학적 측면에서 아방가르드 패션은 아름다움보다는 독특함, 전형적 미학 규범에 대한 저항 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시대 양식과 유사한 지식 및 가치 체계를 공유하며 새로운 디자인 원리 및 지식 체계의 전개를 통하여 복식의 재해석을 시도하였다.

3)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의 미학적 특성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은 저항적 경향의 아방가르드 패러다임을 매개체로 하여 모더니즘의 유기적 전통의 담론이 불확정성, 해체주의 등의 특징으로 적용되었

다. 이성과 합리성 개념의 전복을 의미하는 탈 미학을 중심으로 한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은 시대 조류의 부정과 대중으로부터의 이탈을 특징으로 종래의 디자인 개념을 파괴했다.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의 미학적 특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¹¹⁾ 결과에 따르면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의 미학적 패러다임은 불확정

성, 해체주의, 기술주의, 역사주의, 자연주의, 긴속풍 등으로 나타남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확정성은 모든 사물을 '이것 혹은 저것'이라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둘다' 혹은 '제3'으로 설명하는 사유체계를 말한다. 불확정성이 예술에 최초로

〈표 1〉 현대 패션의 미학적 특성

	패러다임 특성	현대 패션의 미학적 특성		
모더니즘	이성과 합리성 중시 역사의 진화 발전 이성적 사고에 의한 발전 합리성에 의한 발전 가능성 증대 단일관념 체제 엘리트 계층의 시대	단순성과 기능적 디자인 강조 복식 순수미, 육체 자연미 추구 의상착용 규칙 강조 새로운 스타일 사회 발전 표시성, 인종, 시대의 문화적 구분 복식에 코딩 소수의 패션이 대중 패션 주도	 [사진 1]	 [사진 2]
아방가르드	이성과 합리성 도전 및 저항 역사 발전 개념 반발 전통에 대한 의지와 반발 공존 열림과 새로운 미학 전형적 미학규범 전복 의사소통의 중요한 기술은 상징적 전복	기존 미학 정신에 대한 저항 안티 패션, 반 문화적 스타일 기존체제에 대한 반항 복식 서구 미학의 균형 파괴 의상 오트쿠튀르의 완벽한 의복구성 파괴 아름다움보다는 독특함 강조 여성미 배제	 [사진 3]	 [사진 4]
포스트모더니즘	이성과 합리성 단절 및 해체 불확정성 다원성 해체주의 절충주의 기술주의 역사주의 다의성, 애매모호함	기존 복식규범 파괴 단순함과 조화가 아닌 장식 강조 앤드로지너스 스타일 엘리트, 대중 스타일 구분 붕괴 패러디 패스티쉬 브리콜라주 핑크나 히피류의 회고 복장	 [사진 5]	 [사진 6]

[사진 1] Paul Poiret, Mademoiselle Yane, <http://www.samsungdesign.net/default.asp>

[사진 2] Gabrielle Chanel, 「New Look : The Dior Revolution(1998)」, p.32

[사진 3] Madeleine Vionnet, http://www.ellemag.com/elle/fashion/collections/2001-HC-FW/features/stuff_of_dreams/vionnet/index_c.asp

[사진 4] Elsa Schiaparelli, Tear-Illusion Dress and Head Scarf, 「Fashion & Surrealism (1937)」, p.137

[사진 5] Yoichi Nagasawa, 96 S/S

[사진 6] Vivienne Westwood, 95-96 A/W

나타난 것은 16세기 매너리즘에 이르러서였으며, 사물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어느 하나에 절대적 우위성을 부여하는 이원론적인 가치 체계를 대신하여 나타나게 된 것이다¹²⁾.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 Westwood) 같은 디자이너는 포스트모더니즘에 아방가르드의 저항을 혼용하는데,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패러디나 애매함 같은 형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둘째, 해체주의는 20세기말 포스트모더니즘과 함께 나타난 서구 형이상학의 중심주의와 주체를 해체시키고 '억압된 것들의 복귀 현상', 그리고 '탈 중심화'의 개념을 끌어들이어 소외된 타자, 즉 동양, 주변문화, 여성, 추, 빈곤 등을 대두시키고자 한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는 노출, 파괴, 빈곤, 분해적 해체와 상호텍스트성, 탈 현상, 불확실성 등의 원리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¹³⁾.

셋째, 기술주의다. 인간은 컴퓨터를 매개로 전통적 개념을 넘어서는 반 공간적 '비트의 도시'에서 탈 육체화된 전자적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일종의 사이보그가 되어가고 있다¹⁴⁾. 따라서 패션디자이너들은 디지털 혁명이 가져온 생활의 변화를 패션에 반영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따른 변화된 사회를 반영한 결과 기술과 이미지들이 미래주의 패션, 스페이스에이지 패션, 키네틱 패션, 사이버 패션, 테크노 사이버 패션이라는 이름으로 패션에 반영되었다.

넷째, 역사주의다. 보들리야르는 "현재를 대면할 때 과거를 사용하곤 한다"라고 하여 현대 패션의 복고주의적 경향에 대해 언급하였다¹⁵⁾. 포스트모더니즘 시대가 도래하면서 새로운 창조는 더 이상 없다는 사고 아래,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양식을 모방하는 경향이 팽배해지면서 복고풍 디자인이 유행하게 되었다. 현재의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표현되는 역사주의는 역사적 모방이나 과거의 회귀성을 기본으로 하여, 역사적 요소를 현대의 문화 배경에 알맞게 적용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자연주의다. 디지털화의 진전과 함께 증가하게 될 디지털 스트레스는 그의 역 방향인 탈 디지털적인 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을 만들고 있다. 패션에 있어서 자연 친화, 환경 친화적 경향은 천연섬유의 선호, 에콜로지 풍의 스타일, 건강을 위한 기능성 섬유 개발

등으로 나타나게 되며, 자연 체험의 경향은 매니아 층에서의 스포츠 룩의 확산, 아웃도어 스포츠 웨어와 일상복의 혼합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⁶⁾.

여섯째, 민속풍이다. 1960년대 서구의 젊은이들은 사회에 대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이국적인 것과 과거에 대한 흥미로 대체했다. 이들은 다양한 이국적 요소들을 풍부하게 수용해 독창적으로 조합하여 동양권 등 세계 각국의 민족문화가 혼합된 의상을 입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패션 경향에서 두드러진 민속풍의 특성은 비서양지역을 동경하는 이국취향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것은 이질적인 문화들이 접촉했을 때 동질화되거나 융합되는 문화 변용과 연관된다. 포스트모더니즘 사회는 세계화와 지역주의를 동시에 지향한다¹⁷⁾. 오늘날의 문화는 다층적이며 문화의 세계화의 진행과 함께 여러 문화의 혼용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¹⁸⁾. 단수가 아닌 복수의 다양한 문화들의 융성은 기존문화에 대한 저항이며 모더니즘의 이론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은 [사진 5], [사진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 신분, 문화의 측면에서 크로스드레싱(cross-dressing), 푸어 룩(poor look), 그리고 하위문화 스타일(sub culture style)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앞의 내용을 근거로 현대패션의 미학적 특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III. 21세기로의 전환기에 표현된 패션의 미학적 특성

1. 뉴 밀레니엄의 개념과 미학의 변화

뉴 밀레니엄 시대 문화의 변화는 이데올로기에서 권력 중심으로의 이동이다. 이데올로기는 특정집단의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 체계적인 사상의 형태 혹은 사실을 감추거나 왜곡하거나 위장하는 것을 지칭한다. 이데올로기는 문화적 내용이나 행위가 형성된 허위의식을 의미하고 지배계급이 피지배 계급에 대한 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이다¹⁹⁾. 포스트모더니즘에서의 권력은 특정한 체계에 의해 행사되는 것이 아니며 권력은 모든 곳에 산재해 있으며 영원하고 반복적이며 자기 생산적이다. 다시 말하면 권력의

인과성은 거부되고 권력의 다양성이 대두된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이데올로기론에서 행하는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국가의 억압에 대한 논의들이 매우 추상적인 논의라고 보고 있으며, 오랫동안 의문시되지 않은 문제를 제기하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넘어선 현실을 연구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포스트모더니즘적 패러다임은 주어진 법칙이나 규범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계를 분석하려는 기능주의나 구조주의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품는다. 제도적인 조직이나 문화적인 구조를 인정하면서도 사람들의 실천이나 일상생활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즉 주제 자체를 갈등과 경쟁의 장으로 파악한 것이다. 뉴 밀레니엄을 주도할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고찰에 포스트모더니즘 패러다임 특성과 미래학자들의 견해가 그 기저가 되고 있다. 미래학자인 다니엘 벨(Daniel Bell)²⁰⁾, 존 네이스비트(John Naisbitt)²¹⁾,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²²⁾ 등은 뉴 밀레니엄 시대를 다음과 같이 예측하고 있다. 첫째, 21세기는 과거 어느 때보다 이론과 지식이 중시될 것이며 자원공학, 생명공학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과학기술의 시대가 될 것이다. 둘째, 국가 개념이 퇴색하는 대신 민족 개념은 더욱 중요해지고 따라서 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셋째, 생활양식의 모든 측면에서 사회적 다양성과 복잡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넷째, 미래에는 물질적 보상보다 정신적 만족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중시하게 될 것이므로 문화적 기본권의 확대가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학과 디자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미래의 디자인을 위한 기본 골격은 다음과 같이 변화할 것으로 보고있다²³⁾. 첫째, 기존의 파괴와 개성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었던 인간은 성의 개념이 붕괴되는 것을 경험한다. 성의 기준이 와해되면서 인간을 억제해왔던 모든 기준들도 그 힘을 잃는다. 둘째, 변화에 대한 대처로 지금까지의 추세와는 달리 인간은 느낌과 단순함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무서운 속도로 발전해온 문명과 함께 달려온 인간의 정서는 다양하게 얽힌 사회현상과 복잡한 기능 속에서 간

단하고 명쾌한 것을 선호하는 흐름으로 나타나게 된다. 셋째, 경제기반의 다중인격화에 이르게 된다.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소수의 엘리트에게 가치와 힘이 집중되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소비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 두 계층의 차이는 점차 커지게 된다. 전사회적으로 소비의 양극화가 뚜렷해지면서 각 개인의 소비 성향도 양극화 현상을 겪게 된다.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의 양극화는 한 사람 안에 두 가지 이상의 인격이 공존하는 다중인격화에 이르게 된다. 넷째, 여성적 사고로의 변화가 예상된다. 20세기를 지배하던 남성적 가치관과 제도는 21세기에 들어서며 여성적인 시각으로 대체된다. 목적 의식적인 남성적 사고의 흐름에서 감정교류를 중요시하는 여성적 사고로의 변화는 유연하고 관계 지향적 특성을 가진 디지털 사회의 발전을 이끈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한 미래 패션의 패러다임 변화는 다음과 같이 예상되고 있다²⁴⁾. 첫째, 크로스 오버 현상이 주종을 이루게 될 것이다. 소재의 다양화, 소재 활용 영역의 경계, 소비자의 복합감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크로스 오버 현상이 주종이 이루게 될 것이다. 둘째, 개성과 다양성이 강조되는 스페시픽 아이덴티티(specific identity)의 시대가 될 것이다. 정보의 고급화, 보편화, 다양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다양한 문화와 감성이 공존하는 다양성이 급격히 확산될 것이다. 미래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새로움은 우리에게 익숙한 기존의 기능, 감성, 기술적 요소들을 자유롭게 혼합하고 변형하고 개선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셋째, 탈 경계의 시대가 될 것이다. 성의 경계가 무너지고 제3의 성 개념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젠더리스의 경향과 연령에 관계없이 소비자의 감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에이저리스 개념의 패션이 유행될 것이다.

2. 21세기로의 전환기에 표현된 패션의 미학적 특성

미학 패러다임의 변화와 현대 패션의 미학적 패러다임 변화를 분석한 결과, 포스트모더니즘은 20세기에 이어 뉴 밀레니엄 패션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21세기로의 전환기에 표현된 패션의 미학적 특성을 실제 패션 예시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 혼성

문화의 교차와 변종이 기본 개념인 혼성은 탈 중심, 탈 경계, 탈 영역을 바탕으로 불안정성, 유동성을 특징으로 한다. 혼성은 근대주의와 순수 이데올로기 속에서 형성된 양극화의 논리, 대립과 갈등의 세계, 폐쇄적인 평가름과 타자에 대한 억압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며 21세기 문화의 향방을 드러내는 중요한 개념으로 부각되고 있다.

패션에서의 혼성적 특성은 확실한 미적 가치의 부재, 주류를 인정하지 않고 뚜렷한 분류 특성을 찾아낼 수 없는 혼란스러운 패션, 그리고 정확한 형태를 갖추지 않은 불분명한 영역 등을 특징으로 21세기 전환기의 문화적 양상을 설명한다. 남성성과 여성성의 혼재,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의 경계 붕괴, 부와 과시적 빈곤의 혼용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른 하이 패션과 스트리트 스타일의 결합 및 융합된 양식 등이 출현하고 있으며 새로운 미적 개념 등이 제시되고 있다.

전환기에 들어선 21세기 패션은 [사진 7]~[사진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문화 영역에서 시대적 구분이나 절대적 진리와 미를 추구한 가치 체계 대신 다양성의 용납을 수용하며, 각 영역들은 독자성의 지향보다는 상호 침투라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혼성 문화 현상은 포스트모더니즘 사회 하의 모호함에 대한 일종의 문화적 저항 현상인 탈문화를 의미하며, 21세기 전환기의 특징적 현상을 제시하고 있다.

2) 기술지상주의

유전공학자인 프렌치 앤더슨(French Anderson)은 미래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빨리 급진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인간과 기계가 결합하고 인간의 정체성에 관한 심각한 도전이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²⁾. 미래의 기술은 더 이상 인간과 유리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테크놀로지는 비인간적이지 아니며 미래의 테크놀로지는 중성적이지 않다. 그 자체가 문화 담론 체계의 일부다. 미래의 테크놀로지는 인간에게 해방이나 속박을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계와의 공존으로 인간의 편리함을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21세기는 이러한 기술과 기능주의가 상호작용과 조화를 이루는 패러다임이 주류를 이루는 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빠르게 발달하는 과학 문명과 조형 예술을 결합시키려는 노력은 20세기의 시대적 요구이며 많은 디자이너의 창작 욕구가 계속 강하게 나타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진 12]~[사진 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많은 영역에서 사과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준 과학기술의 진보는 디자인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첨단 신소재의 출현은 디자이너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 소재에 대한 기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생산 방법과 기술, 디자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3) 신 복고

21세기로의 전환기에 표현된 패션에 있어서 신 복고의 주된 경향은 과거복고와 원시회귀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초현대적 세련미와 클래식적 정통성이 혼합된 복합적 개념의 요소들이 자유주의적 개성미와 절제된 복고풍의 고전미를 동시에 표출하는 신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옛것을 되살리면서 현대의 정체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옛것을 새롭게 독특하게 해석하려는 대중문화의 흐름 속에, 비문명적 요소 도입을 통한 자연미와 현대미의 공존을 특징으로 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21세기로의 전환기에 표현된 패션은 [사진 17]~[사진 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신 복고성을 기본으로 의상의 변화는 점진적이고 순간의 환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역사의 아나크로니즘(anachronism)의 의미를 표방하고 있다. 실용성과 모던함의 강조로 삭막해진 21세기 현대인들에게 과거의 환상과 낭만을 주는 신 복고성은 체계적인 사고와 구분되는 유형의 사고의 패러다임을 기본으로 하며, 그 자체의 상대성 때문에 보편적이고 타당한 기준 적용이 힘든 특징을 갖고 있다. 과거의 역사를 응용한 디자인은 외적으로는 지나간 세계에 대한 향수로 과거의 의상을 재현하고 내적으로는 디자이너의 영감과 결합된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다양함을 제공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4) 신 자연주의

현대에 들어와 테크놀러지의 매너리즘으로부터 탈피한 비 공격적이며 환경 친화적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정신과 육체가 공존하고 이성과 감성이 서로 혼합되고 있으며, 현대과학은 휴머니티와 관능미를 고려하고 있다. 21세기 전환기에 나타나고 있는 신 자연주의적 경향은 현대인의 상실된 본질을 찾고 자연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킴으로써 자연, 순수 회귀, 인간 본성 회귀의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인간은 인간성 회복 및 자연과 함께 하고자 하는 자연회귀의 본능으로 인하여, 인위적인 것을 거부하고 자연의 순수성과 여유 및 정신적 풍요를 갈망하고 있다. 생태학에 대한 관심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반공해 운동으로 전 세계에 퍼지고 있다. 패션에 있어서 편안함을 강조하는 에콜로지 경향은 본질적인 인간 가치 추구에 근거하고 있다.

21세기로의 전환기 패션에 나타난 자연주의는 [사진 22]~[사진 2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결국 총괄적인 에콜로지의 한 양상으로서, 지구의 생태학적 위기를 인식하고 인위적이고 구조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자연적인 것에 기본을 둔 순수성과 인체를 구속하지 않는 편안함과 자연스러움의 추구를 통해 자연의 생명력에 대한 향수를 표현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볼 수 있다.

5) 다 민족주의

21세기 다원주의적인 시대의 흐름은 여러 나라의 이국적인 특성의 혼재에 의해 시간성과 장소성의 이질감을 이항대립의 구조로 특성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특성이 가시화 된 21세기 전환기 패션은 국민적 성격을 표현하는 민족주의가 서로 다른 유기체와 정신이 뒤섞이는 형태를 보임으로써 21세기 다 민족주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패션에 있어서 다 민족주의는 1980년대에 이르러서 패션의 개성화, 다양화를 중심으로 기존의 고정 관념에서 탈피한 해체적 사고와 미적 견해를 표현하는 패션을 제시한다. 21세기는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극동, 중동 등을 중심으로 한 패션 경향이 더욱 변화 발전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는 상황이다.

21세기 전환기 패션에 반영된 다 민족주의는 [사진 27]~[사진 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프리카, 중남미,

〈표 2〉 21세기로의 전환기에 표현된 패션의 미학적 특성 I

구분	내용	특성	패션 특성
혼성 (hybrid)		성의 혼성 (genderless) : 제 3의 성 추구	남성복식과 여성복식의 혼용(이미지, 아이템, 형태, 소재, 디테일 등의 혼용)
		신분, 문화의 혼성(identity loss, cultural confusion)	하이패션과 스트리트 스타일 혼재(아이템, 형태, 소재, 디테일, 소품 등의 혼성)
기술 지상주의 (technicism)		기능성 강조 (functionalism) : 탈 인체	복합 기능복식 (기능성 장치, 소품, 하이테크 소재)
		미래 지향 (futurism) : 미래 동경	미래주의적 요소 도입 (사이버 소재, 테크노 형태, 멀티 컬러)
신 복고 (neo-retro)		과거 복고 (retro) : 노스텔지아	복고풍 (과거 복식 차용, 과거와 현재 스타일 혼재)
		원시 회귀 (primitivism) : 반문명화	비 문명적 요소 도입 (원시주의적 요소: 이미지, 신체장식, 소품)
신 자연주의 (new-naturalism)		생태주의 (ecology) : 자연, 순수 회귀	자연적 요소 도입 (자연의 식물 문양, 천연 소재, 컬러, 형태)
		인간 중심 (humanism) : 인간 본성 회귀	인간신체 강조 (노출, 시스루소재, 편안함과 안락감 추구)
다 민족주의 (multi-nationalism)		다 문화 (multi-culturalism) : 탈 인종주의	비 서구, 동양풍 (중국, 일본, 한국, 인도, 중동, 아랍 등)
		지역성 (localism) : 제 3세계 추구	각 민족적 요소 혼재 (각 나라의 민족의상 요소 차용)

중동, 아시아 등의 소수 민족 스타일의 요소를 차용하거나 각 민족적 요소를 사용하여 비주류, 비 서구, 제3세계에 대한 관심을 표방하고 있다.

앞에서 고찰한 21세기 전환기 패션의 미학적 특성을 패션 예시와 함께 정리하면 〈표2〉, 〈표3〉과 같다.

〈표 3〉 21세기로의 전환기에 표현된 패션의 미학적 특성 II

구분 \ 내용	패션 예시				
혼성 (hybrid)	 [사진 7]	 [사진 8]	 [사진 9]	 [사진 10]	 [사진 11]
기술 지상주의 (technicism)	 [사진 12]	 [사진 13]	 [사진 14]	 [사진 15]	 [사진 16]
신 복고 (neo-retro)	 [사진 17]	 [사진 18]	 [사진 19]	 [사진 20]	 [사진 21]
신 자연주의 (new-naturalism)	 [사진 22]	 [사진 23]	 [사진 24]	 [사진 25]	 [사진 26]
다 민족주의 (multi-nationalism)	 [사진 27]	 [사진 28]	 [사진 29]	 [사진 30]	 [사진 31]

[사진 7] Jean Paul Gaultier, 2000 A/W

[사진 9] Vivienne Westwood, 2000 A/W

[사진 11] Comme des Garçons, 2001 A/W

[사진 8] Jean Paul Gaultier, 2001 A/W

[사진 10] John Galliano, 2000 A/W

[사진 12] Alexander McQueen, 2000 S/S

[사진 13] Issey Miyake, 2000 A/W
 [사진 15] Alexander McQueen, 2000 S/S
 [사진 17] John Galliano, 2001 S/S
 [사진 19] Alexander McQueen, 2000 S/S
 [사진 21] Alexander McQueen, 2000A/W
 [사진 23] Thierry Mugler, 2000 S/S
 [사진 25] Comme des Garçons, 2000 S/S
 [사진 27] Kenzo, 2000 S/S
 [사진 29] Kenzo, 2001 S/S
 [사진 31] Kenzo, 2000 S/S

[사진 14] Paco Rabanne, 2001 S/S
 [사진 16] Paco Rabanne, 2001 A/W
 [사진 18] Alexander McQueen, 2000 A/W
 [사진 20] Vivienne Westwood, 2001 A/W
 [사진 22] Alexander McQueen, 2001 S/S
 [사진 24] Alexander McQueen, 2000A/W
 [사진 26] Paco Rabanne, 2000 S/S
 [사진 28] John Galliano, 2001 S/S
 [사진 30] Alexander McQueen, 2000 S/S
 *사진 출처 : <http://www.firstview.com>

IV. 결 론

21세기는 기존 문화 개념의 전개를 전복한 복합적이고 상대적인 가치관 및 세계관이 수용되고, 문화의 발전 양식도 한층 더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것의 근간을 구성하고 있는 미학 특성도 역시 급진적인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세기에서 21세기로 변화하고 있는 전환기의 패션은 변화의 수용과 저항이라는 급격하고 복합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패션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학 특성 변화에 대한 총괄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성분석법을 이용해 21세기 전환기 패션의 미학적 특성을 도출하였는데, 그 이론의 틀로서는 토마스 쿤(Thomas Kuhn)의 '패러다임 변환(paradigm shifts)' 개념을 활용했다. 이를 통해 모더니즘, 아방가르드,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나타난 특성과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21세기로의 전환기 패션의 미학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21세기로의 전환기에 표현된 패션의 미학적 특성은 혼성(hybrid), 기술지상주의(technicism), 신 복고(neo-retro), 신 자연주의(new-naturalism), 다 민족주의(multi-nationalism)의 다섯 가지로 도출되었으며 그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혼성은 다원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며, 궁극적인 가치의 존재를 부정하고, 수직적인 위계 질서보다는 수평적인 다양성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학적으로는 진리나 미를 추구한 굳어진 가치 체계 대신 다양성을 수용하며 모든 영역이 독자성을

추구하기 보다 상호 침투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1세기로의 전환기 패션에서의 혼성적 특성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혼재, 부와 과시적 빈곤의 혼용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기술지상주의는 인간적인 가치를 최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미래의 흐름 속에서 그러한 기능을 확대하고 다원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21세기로의 전환기의 패션은 기능성을 강조하는 복합기능 복식의 출현, 미래 지향의 미래주의적 요소 도입 등 인간과 기술이 상호작용과 조화를 이루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신 복고는 과거 역사적 요소 도입에 의해 인간적 욕구를 충족하고 역사적 유희를 즐기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21세기로의 전환기 패션에 표현된 방법은 과거 양식 형태를 출발로 새로운 재질과의 혼합, 장식성의 가미를 통한 시대의 절충 등이다.

넷째, 신 자연주의는 현대인의 상실된 본질을 찾고 자연 환경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킴으로써 자연과 인간 그리고 의상의 융화됨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1세기로의 전환기의 패션은 자연적 요소의 도입, 인간 신체 강조 등을 통하여 인간성 회복 및 자연과 함께 하고자 하는 자연회귀의 경향을 표현하고 있다.

다섯째, 다 민족주의에서는 각 민족의 고유문화가 상호작용을 통해 다른 문화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한편 이런 경향에 반발하여 자신의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는 움직임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서구적인 동양풍 의상, 각 민족적 요소의 도입을 통한 다 민족주의적 경향인 21세기로의 전환기 패션의 중요한 특성으로 자리잡고 있다.

결론적으로, 21세기로의 전환기 패션의 특성은 포스트모더니즘의 기본 사상을 기본으로 하여 생성·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다원성과 관용성이 각 특성의 형성과 발전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와 같은 정성분석의 제한점은 21세기로의 전환기에 표현된 패션의 미학적 특성의 도출을 위하여 체계적인 검증 없이 문헌 연구와 이론 비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제 2보에서는 실제 21세기로의 전환기 패션을 정량적(quantitative)으로 분석하여 본 정성분석에서 도출된 결과의 타당성의 검증을 시도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1) P. Berger · T. Luckman,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Garden City, NY: Sage, 1967).
- 2) Weber는 연구 대상의 여러가치를 합성하기 위해 묘사, 서술을 통한 기술적 절차(idiographic)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의 연구방법은 연구대상의 사실적 조건과 그 의미를 연구자료로 하고 설명의 유형은 의미해석을 통한 인과론적인 방법을 활용한다.
- 3) Thomas S. Kuhn, *김명자역, 과학혁명의 구조*, (서울: 까치글방, 2001), p.34.
- 4) Thomas S. Kuhn, *Ibid*, p. 43.
- 5) C. Dilnot, *The state of design history*, Victor Margolin (Ed.), *Design discours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9).
- 6) 박상진, *포스트모던 시대의 문화이론: 포지올리의 아방가르드론을 중심으로*, (서울: 문예출판사, 1996), p. 39
- 7) 김옥동,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현암사, 1992), p. 141.
- 8) Bruno Roselle, *La mode*, (Paris: Inprimerie Nationale, 1980), p. 108.
- 9) Richard Martin, *Fashion and Surrealism*, (London: Thames and Hudson, 1988), p. 200.
- 10) Diana Crane, "Postmodernism and avant-garde: Stylistic change in fashion design", *Modernism /modernity* volume 4. number3,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 129.
- 11) 김민자,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I)", *복식* 37호, 1998.
김주영 · 양숙희, "현대 복식에 나타난 '외부로부터의 해체' 현상(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1(8), 1997.
이정후,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나타난 불확정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8.
정현숙, "패션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5.
- 12) 이정후, *Ibid*, 10-11.
- 13) 김주영 · 양숙희, *Ibid*, 1261-1274.
- 14) 디지털 문화 혁명, *문화일보* 2000년 6월 12일자 23면.
- 15) Richard Martin · Harold Koda, *The Historical Mode*, (N.Y: Rizzoli, 1989), p. 7.
- 16) *Tex Herald*, Apr. 2, 2001.
- 17) 김호기, *문화의 세계화와 민족문화의 미래*, 1998, p. 68.
- 18) 정상준, "문화적 다양성과 다문화주의", *외국문화* 43호, 1995, p. 92.
- 19) Marx, K. *Selected writings in sociology and social philosophy*. (T. B. Bottomore & M. Rubel, Eds.). New York: McGraw-Hill.
- 20) Daniel Bell, *이동만 역, 정보사회의 사회적 구조*, (서울: 한울사, 1984), 36-38
- 21) John Naisbitt · Patricia Aburdene, *김흥기 역, 메가트렌드 2000 (Megatrends 2000)*,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7), p. 29.
- 22) Alvin Toffler, *정해근 역, 제 3의 물결*, (서울: 정암, 1987), 45-60.
- 23) *Experience Design Trend 2003*. 전경련 산업디자인 특별위원회.
- 24) 김소영, "뉴 밀레니엄 시대의 패러다임과 여성패션에 관한 연구", *서일논총*, 2000, 382-384.
- 25) Griffith, S. *미래는 어떻게 오는가: 세계 최고 석학 30인과의 대화*. (서울: 가야넷, 2001), p. 72.
- 26) 이영희, *과학기술의 사회학*,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00), p. 13.